



맘마미아

뮤지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

뮤지컬 <맘마미아>는 세계적인 팝 그룹 아바의 히트 곡 22곡을 엮은 주크박스 뮤지컬이다. 1999년 영국 웨스트엔드에서 탄생한 이후 현재까지 미국, 독일, 프랑스 등 48개 프로덕션, 220개 주요 도시에서 6천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20억 불 이상의 티켓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전 세계 메가 히트 작품이다. 한국에서는 2013~2014년 오리지널 팀 내한 공연 이후 3년 만이다.

누구도 예외 없이 치렀던 오디션들 통해 원년 멤버와 차세대 주인공이 될 실력과 배우들이 선발되었다. 최정원, 신영숙(도나), 전수경, 김영주(타냐), 이경미, 홍지민(로지), 남경주, 성기윤(샘), 이현우, 정의욱(해리), 오세준, 호산(빌), 박지연, 소녀시대 서현, 김금나(소피), 심건우(스카이) 등 37명의 배우는 더욱 강력한 에너지의 뮤지컬 <맘마미아>를 선보이고 있다.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음악, 화려하고 역동적인 무대, 익숙하지만 어김없이 젊은 날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스토리까지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노래하는 뮤지컬 <맘마미아>를 통해 수많은 관객들이 희망과 치유의 시간을 경험하게 된다.

뮤지컬 <맘마미아>는 오는 6월 4일까지 샤롯데씨어터에서 공연된다.

문의 1544-1555

이지혜 리포터 angus70@hanmail.net



전시

<언더 마이 스킨>展

젊은 세대가 만들어내는 피부 밑 서사

하이트컬렉션에서는 젊은 작가들의 그룹전인 <언더 마이 스킨>전이 오는 5월 21일까지 열린다. 이 전시는 2014년부터 국내 젊은 현대미술 작가들을 발굴 및 지원해온 하이트컬렉션의 젊은 작가전의 세 번째 전시로 올해는 스토리텔링을 키워드로 해서 젊은 세대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서사와 작가들이 구축하고 있는 개인적 신화들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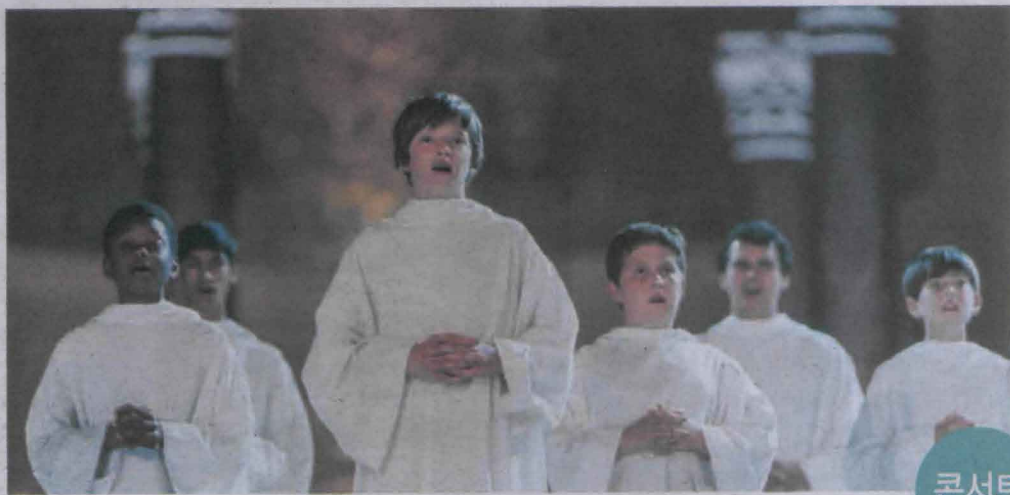
이번 전시는 무엇보다도 자칫 일시적이고 표피적인 세대로 치부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이 피부 밑에서 의문스럽게 만들어내는 서사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참여 작가들은 양희아(Heeah Yang), 염지혜(Ji Hye Yeom), 윤형민(Hyung-Min Yoon), 이동근(Dong-Geun Lee), 이솜(Aesop), 이혜인(Hyein Lee), 전해림(Hyerim Jun), 함혜경(Hyekyung Ham)(이상 8인)이며, 회화, 설치,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다룬 작품을 선보인다.

자료제공 하이트컬렉션

문의 02-3219 0271

박혜준 리포터 jennap@naver.com

1 이동근 Trace of Flight 1, 2015, mixed media, 207x150cm, Courtesy of the artist
2 이솜 Showcase for Megalopolis, 2015,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Courtesy of the HITE Collection
3 이혜인 High Line Park, 2015, oil on canvas, 36 x 28 cm, Courtesy of the HITE Collection



콘서트

리베라 소년합창단

세상을 치유하는 맑고 투명한 목소리

영국 '리베라 소년합창단'이 오는 3월 31일(목)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내한공연을 펼친다. 이번 내한공연은 지난해 메르스 여파로 공연이 취소돼 안타까워했던 팬들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기획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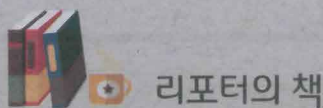
순수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영국 런던 남부 출신의 소년합창단 '리베라'는 유럽에서 '현대의 모차르트'라고 불리는 천재 지휘자겸 음악감독 로버트 프라이즈만(Robert Prizeman)이 결성했다. '리베라(Libera)'는 라틴어로 '자유'를 뜻하며 특정 학교나 종교단체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중세음악과 현대음악을 아우르며 '리베라'만의 색깔로 음악을 구현한다.

'리베라'는 대표곡들을 난이도 높은 고음역대로 편곡해 노래함으로써 듣는 이로 하여금 감탄과 감동을 자아낸다. 특히 'Sanctus', 'Walking in the Air', 'Far away' 등과 같은 곡들은 특유의 신선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 넣어 유명 CF 광고는 물론, 영화와 TV 예능프로그램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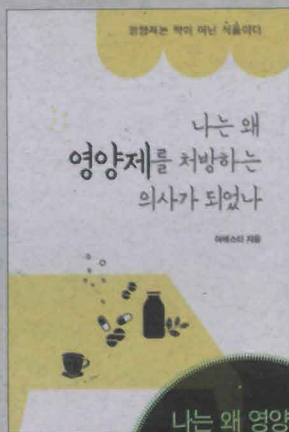
무대를 수놓는 화려한 조명, 12개의 악기 실황 연주로 구현되는 풍성한 사운드, 스토리텔링형 영상으로 연출되는 무대는 기존 소년합창단들의 무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경이롭고 웅장하다. 소년들의 안무 또한 공연의 흥미로운 볼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02-548-4820

이선이 리포터 2hyeono@naver.com



리포터의 책



나는 왜 영양제를 처방하는 의사가 되었나

저자인 여에스더
퍼낸 굿 메디치
가격 14,000원

읽으면서 건강해 지는 책

체력이 떨어졌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럴 때면 홍삼, 물범, 녹용, 사슴, 흑염소 등 몇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 하지만 함께 사는 시어머니에다 아이들, 남편을 생각하면 쉽사리 나를 위해 보약을 해먹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책 <나는 왜 영양제를 처방하는 의사가 되었나>는 바로 그런 '나'를 위한 책이다.

저자인 여에스더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먹을 필요 없다고 말하는 영양제를 과감하게 먹으라고 썼다. 그것도 많이 먹으라고 썼다. 본인이 의사였던 시절, 약보다는 영양제 권유를 훨씬 더 많이 했다고 고백까지 한다. 그 이유가 재미있다. 본인이 몸 여기저기 아픈 환자였고, 그걸 극복하려다 보니 저절로 자신의 몸으로 영양제를 실험하게 되었단다.

비타민D만 잘 챙겨먹어도 갱년기에 생기는 병 여러 가지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작가는 비타민D가 암까지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한다. 햇빛과 음식으로 생성 가능한 비타민 D이지만 현대인의 생활에선 그게 어려우니 영양제를 먹어 체내에 필요한 비타민D를 생성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좋다! 오늘부터 영양제를 꼭 챙겨 먹어야지!

이지혜 리포터 angus70@hanmail.net